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 구약 신학, 3차 세션, 언약을 만드는 신

© 2024 Tiberius Rata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구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3, 언약을 만드는 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언약을 만드는 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그래서 성경은 신을 창조주로 계시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창조하고,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약을 만들고 언약을
지키는 신으로 묘사됩니다.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의 홍수 이야기 6~9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입니다.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면,
언약은 두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으로, 한 당사자 또는 양측이 사전에
규정된 특정 행동을 수행하거나 삼가겠다고 서약하면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두 당사자 이상 간의 엄숙한 합의이며, 어떤 종류의 맹세로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을 살펴보면 언약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약과 같습니다.

그것은 계약과 같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 있었습니다. 왕들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과 일반 사람들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언약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체 성경의 궤적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은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새 언약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살펴보면, 언약에 사용된 용어, 언약에 사용된 주요 용어는 바리타라는 용어인데, 구약에 100번 이상 등장합니다.

우리가 신약에 도달하면, 그 단어는 *diatheke* 입니다 . 그것은 유언, 언약 또는 의지로 번역되었으며 약 30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성경을 보면, 그것들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어떤 구약학 교수들이 말하듯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언약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제 친구인 월터 카이저가 신약은 구약의 부록이라고 말했던 걸 기억합니다. 물론, 그는 농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을 다시 살펴보면, 저는 언약이 매우, 매우 일반적이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또는 왕들 사이에서 맺어진 모든 종류의 조약이 있었습니다. 왕들 간의 국제 조약은 언약 언어를 사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 많은 것이 *if then* 언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딸을 내 아들에게 시집보낸다면, 나는 당신의 땅을 침략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아마도 솔로몬이 파라오와 맺은 언약일 것입니다.

그러면 종주권 조약이 있는데,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계약 조건을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예를 들어, 덜 강력한 세력이나 평범한 사람과 계약을 맺으면, 그것은 종주권 조약이 됩니다. 그들은 동등한 당사자가 아닙니다.

하나는 다른 하나 위에 군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성경적 언약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군주이고, 우리는 그의 추종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신과 협상하지 않습니다. 신은 "이봐, 내가 너에게 10 계명을 줄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협상해서 "이봐, 9계명은 언제? 아니, 그런 건 없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주권 협정과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언약은 동등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1장에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심을 인정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으로 나에게 맹세합니다. 너는 나와 내 자손과 내 후손에게 거짓으로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친절했던 것처럼 너도 나에게, 네가 거주하는 이 땅에 친절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맹세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계속해서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사무엘하 19장에도 비슷한 언약이 있지만, 이번에는 다윗 왕과 바실래가 언약을 맺습니다. 사무엘하 19장.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그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들을 살펴볼 때, 아브라함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다윗, 그리고 물론 새 언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야훼의 언약에 대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일방적이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이라는 것은 또한 몇 가지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조건과 조항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협상하지 않습니다. 이 언약 어디에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을 때, 우리는 언약의 규정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합니다.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점은 이러한 언약 중 일부에 의무나 조건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에는 약속과 의무가 모두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의무가 조건일까요? 의미론에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일부 사람들이 이러한 언약 중 일부는 무조건적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의 의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조건적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돌, 바위에서 일으키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언약의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택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의 한 예는 할레의 경우인데, 모세가 자신의 아들을 할레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계속되었지만, 모세는 그 언약의 축복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모든 남자를 할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조건이며 의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그것은 우리가 "글쎄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은혜로우시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본문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니 먼저 약속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은 창세기 12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볼 때, 12장이 중요한 이유는 처음으로 약속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15장에서는 맹세를 통한 언약의 비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할례를 통한 언약의 표가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축복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은 세 번째 약속을 줍니다.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위대한 민족, 위대한 이름, 위대한 땅.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나머지 성경의 궤적을 정할 중요한 약속입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

하지만 요점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민족에게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당신을 통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선교하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 봅니다. 그는 단지 이스라엘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통해 땅의 모든 가족을 축복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위대한 국가, 위대한 이름, 그리고 위대한 땅. 이스라엘 역사에서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항상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땅에서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킬 때 너희를 땅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땅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다음, 17장에서, 우리가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볼 때, 우리는 또한 언약 공식이라고 불리는 것을 봅니다. 언약 공식은 17장에 나타납니다.

일곱째, 내가 너와 네 후손 사이에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는 나와 네 후손 사이에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 되어 너와 네 후손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내가 네 후손에게 네 나그네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언약 공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나타납니다. 모세 언약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고 싶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또한 언약을 만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15장에는 이 언약의 비준에 대해 말하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부 학자들이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말하게 된 이유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암소를 데려와 염소를 데려오는 방법에 대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그에게 가져와서 반으로 자르고 반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를 반으로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맹금류가 시체 위로 내려오자 아브람은 그들을 몰아냈습니다. 해가 지려고 할 때,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닥쳤고, 보라, 무섭고 큰 일들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그들의 것이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고, 거기에서 종이 될 것이며, 400년 동안 고통을 받을 것임을 확실히 알아라.

그러나 나는 그들이 섬기는 민족들에게 심판을 내리고, 그 후에 그들은 큰 소유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너는 평화롭게 네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좋은 노령으로 묻힐 것이고, 그들은 네 번째 세대에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연기 나는 가마와 불 가마와 타오르는 횃불이 이 조각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며 말씀하신 날, 당신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예레미야서에 있는 한 구절을 제외하고는 이 의식을 설명하는 내용이 본문에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심판과 관련이 있는데, 심판은, 만약 당신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이 동물들처럼 반으로 자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맹세가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내 거래의 끝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이 시체들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텍스트에서 흥미로운 점은, 다시 말해서, 보통 누군가와 언약을 맺으면 두 분 모두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텍스트에서는 오직 신만이 통과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무조건적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서도 아주 좋은 요점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신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제 거래의 끝을 지킬 것입니다.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나는 너에게 큰 이름을 지어줄 것이고, 너에게 크고 큰 땅을 줄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글썄요, 출애굽기 1장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고,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 세대의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여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들은 번성하여 매우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몇 백 년 후에 약속과 언약이 성취된 것 같습니다. 약속,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위대한 민족일 뿐만 아니라, 성경 기록에서 고대 근동에서 이름이 명성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위대합니다. 어떻게? 글썄요, 파라오는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다음 구절에서 그것을 봅니다.

이제 이집트에 새로운 왕이 일어났는데, 그는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고 우리보다 너무 강합니다. 와서 그들이 번성함에 따라 그들을 슬기롭게 대합시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은 우리의 적들과 합류하여 그들과 싸우고 그 땅에서 도망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에게 가면이나 감독관을 세워서 그들에게 무거운, 무거운 짐을 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두 가지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봅니다.

또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흥미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19장 5절에 나오는 위대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참으로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내 보배로운 소유가 될 것이다.

히브리어 단어 세굴라 . 그래서 이것도 약속의 성취의 또 다른 측면인 듯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위대한 민족이며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직 땅이 없어요. 약속의 땅도 아직 없어요.

약속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1장에 도달할 때에만 그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몇 백 년이 더 걸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엑소더스 사건이 1446년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속과 그 약속들의 성취를 살펴볼 때, 우리는 또한 궁극적인 성취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역사적 성취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이 자신에 대해 말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 아브라함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도달하면,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위대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3:1에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읽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립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불립니다. 가도 됩니다. 우리는 훌륭한 가족입니다.

이 세상 어디든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위대한 신자 국가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은 어떨까요? 땅을 얻을까요? 이스라엘에서 부동산을 얻을까요? 글쎄요, 저는 우리의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의 부동산, 특히 네게브의 부동산보다 더 나았으면 합니다.

당신은 사막에 있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우리의 상속 재산이 고대 근동이나 이스라엘의 땅보다 훨씬, 훨씬 더 좋다고 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13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매달린 자는 다 저주를 받았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이방인에게 가서 우리로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도 받는다. 이제, 천국은 오늘날 이스라엘의 땅 한 조각보다 훨씬 더 낫다고 나는 주장하고 싶다.

그래서,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조건적이든 무조건적이든 말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의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그것을 아브라함 언약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길 바랍니다.

모세의 경우도 그렇고, 다윗의 경우도 그렇고, 새 언약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모세 언약을 살펴보면, 모세 언약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것입니다. 모든 약속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카나안 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나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약 공식을 갖게 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곳에서 본 적이 있나요? 네. 이 약속들은 새로운 약속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약속들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들을 아브라함 언약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모세 언약으로 보는 대신, 아니요. 우리는 그것들을 평행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서 다시 성취를 찾을 때까지 평행하게 진행됩니다.

약속이 동일하기 때문에 모세 언약의 다른 점은 아브라함 언약의 조건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모세 언약의 조건성에 대한 의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매우, 매우 명확한 if-then 언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 if-then 언어는 명확하고, 언약의 조건성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에 주어진 십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5장에서 반복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세대에서 18세 이하의 아이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모세조차도 성공하지 못했고, 오직 구세대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성공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약속들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여호수아서 1장에서 땅을 얻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과 마찬가지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산상 설교에서, 그런데, 율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많은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셨는데, 예수께서는 율법 의 글자를 온전히 성취하신 유일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티베리우스, 율법은 저 밖에 있는 높은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은 그들이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율법은 실제로 최소한의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서가 아니라 은혜 아래서 사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은 기준을 높이는 것이지,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을 입법자로서 이야기할 때 그것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율법 아래서가 아니라 은혜 아래서 사는 것이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높인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 예수님께서 여기 5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마태오에게서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그것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노라.

그리고 당신은 이 구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말해졌다는 것을 들었지만, 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다시, 예수께서 기준을 높이실 때, 당신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나는 형제에게 노하는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느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음욕으로 보는 자마다 마음으로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를 다시 한 번 높이셨지,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은 나쁜 것일까요? 모세 언약은 나쁜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좋은 법을 주었다고. 이것들은 법이 아니었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이 모세 언약이 본질적으로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새 언약이 올 때까지, 예수께서는 다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삶, 죽음, 부활은 이 언약들의 약속을 성취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예레미야 31장에서 히브리어 저자가 인용한 내용이 두 번 나옵니다. 새 언약은 전체가 한 번 인용되어서 신약에서 인용된 구약의 가장 긴 구절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까지 히브리서 저자는 옛 언약이 예수께서 한 번만 영원히 제물이 되실 때까지 일시적인 성격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서 성취됩니다. 나중에 새 언약에 대해 이야기할 때 새 언약을 언급하고 인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사람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 과 모세를 거쳐서 다윗에게로 갑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언약이 있고, 그 약속은 이제 아브라함과 모세의 언약과 조금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위대한 나라, 위대한 이름, 위대한 땅.

이제 사무엘하에서 당신은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7장 15절, 14절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그가 불의를 행하면, 나는 사람들의 막대기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그러나 내 변함없는 사랑은 내가 네 앞에서

쫓아낸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같이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네 집과 네 왕국은 내 앞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네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므로 이것들은 매우 중요한 약속입니다.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며, 왕위에 오를 왕이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주석입니다. 후손을 일으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이지만, 지속적이고 중단 없는 통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성전 헌당 기도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과 솔로몬과의 대화는 매우, 매우, 매우 명확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은 그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솔로몬이 불행히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신에게 불순종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신은 솔로몬에게 화가 났습니다. 열왕기 상 11장에 보면, 신이 말씀하시길, 내가 왕국을 반으로 찢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922년에 왕국이 분열되고,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하여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587년에 남왕국이 멸망합니다.

587년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더 이상 왕이 없습니다. 글썄요, 하지만 신이 약속하셨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중단 없는 통치는 이스라엘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데려가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더 이상 왕이 없습니다. 587년 이후에는 성전마저 파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어떻게 성취될까요? 글썄요,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약속했기 때문에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예수를 제사장직과 연결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부터입니다. 글썄요, 우선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한 약속을 이룰 것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 날들에, 그 때에, 나는 다윗을 위하여 의로운 가지를 돌아나게 하리니, 그는 땅에서 공의와 의를 행할 것이다. 그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이것이 그 이름이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의로움이시다.

이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이라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집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결코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레위 제사장들에게도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영원히 제사를 드릴 사람이 결코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다.

587년 이후에는 왕이 없었고,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나중에 성취된 것을 살펴봐야 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후, 누가복음 1장 32-35절.

여기가 예수의 탄생이 예언된 곳입니다. 이것은 마리아에게 말하는 천사입니다. 그는 위대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약속된 왕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왕국입니다.

그것은 예수 왕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서 성취됩니다. 오순절 날에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하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선지자들이 말하는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설명해야 할 때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엘서, 시편에서 나온 이 모든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나 스스로 이르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손을 세우라 하셨 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이 확실히 알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음이니,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 그러므로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서 성취된다.

왜 새 언약이 필요할까요? 옛 언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언약을 따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언약을 만들 것이다.

그런데 새 언약이라는 표현은 구약 전체에서 여기서만 나타납니다. 이제 그 개념은 에스겔서에도 있지만 표현에 있어서는 새 언약은 여기서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새롭다로 번역된 하다샤라는 단어는 아주 새롭다와 새롭게 되었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번역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칠십인역이 번역될 때 '새로운'이라는 단어를 '새로운'으로 번역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 새 언약은 새 언약 이어야 한다'고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새 언약의 약속은 여러 면에서 옛 언약의 약속을 갱신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아주,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완전히 새로운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우리는 약속된 새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라, 여러분이 들으면서, 어떤 요소들이 아주 새롭고 새로워졌는지 생각해 보라,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을 날이 오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었던 언약과 같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뜨린 내 언약을 주께서 선언하시느니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그 날들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니라. 내가 내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다른 곳에서도 들어보셨나요? 네, 언약 공식은 전에 등장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것은 율법의 내면화입니다. 신은 내가 그것을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그들 안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각자가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임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언약을 사하셨는가? 하나님이 옛 언약에서 죄를 사하셨는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네가 이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면 네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용서받을 것이다, 용서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히브리서에서 설명하듯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영원히 드린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법을 우리 안에 두실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글썄요, 다시 말하지만, 그 표현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 개념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두어지는지에 대한 답을 받을 때 에스겔 36에서 나타납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리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속에 두리라. 내가 너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대로 행하게 하며 내 규례를 주의하여 지키게 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직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에서 새로운 것은 영이 이제 믿는 사람 안에 거한다는 사실인데, 이것은 구약에서는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성령은 특정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 특정한 사람들에게 내려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 언약 공동체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 언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모세 언약은 계시적이고 규제적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만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22:20에서 “또 그들이 먹은 후에 잔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부어진 것이니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주의 만찬에서 새 언약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주의 만찬에서 새 언약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릴 때 그것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새 언약이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새 언약의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서, 새 언약이 예레미야서에서 히브리서로 인용될 때, 다시 두 번 나옵니다. 8장에 부분적으로, 8장에는 전부는 아니고, 실례합니다. 그리고 10장에 부분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8장에서도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레미야서 31장부터 31장부터 34장까지 전체 구절을 인용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0장에서 그는 우리가 예수께서 단번에 영원히 희생제물이심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2장,

그리고 그 이상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장,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영원히 바침으로써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먼저 성막에 가야 했고 그 다음에 성전에 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일년에 세 번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일인 욥 키푸르는 일년에 한 번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와 온 민족의 죄를 위해 자비소에 피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것은 단번에 영원한 희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언약과 언약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새 언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3, 언약을 만드는 신입니다.